

흥겨운 고창해풍고추축제

고추 꼭지 빨리따기·김치 담그기 등 참여형 행사 '인기 만점'

‘청정 고창 해풍고추, 그 참맛과 참빛 체험!’이라는 주제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20회 고창해풍고추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고창 해리중학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어느 해보다 다채로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27일 열린 기념식에는 박우정 고창군수와 최인규 군의장, 유성엽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장명식 도의원, 군의원, 김갑산 축제위원장, 임정호 재경군민회장과 각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관광객 등 85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흥겨운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축

제는 기념식 후 군민화합을 위한 500명분의 비빔밥 잔치가 열려 행사에 참가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겼다. 또한 WBC원음방송 ‘조은형의 가요세상’ 특집공개방송과 농악단 길놀이 공연, 관광객 어울마당 및 해풍고추가요제 등 흥을 돋우는 풍성한 공연이 마련돼 즐거움을 더했다.

참여객을 위한 체험 행사로 해풍고추 꼭지 빨리따기, 싹고추 찌기 대회, 김치 담그기 체험과 고추 전 부치기 체험 등 재미있는 행사들이 마련돼 참여형 축제의 재미를 극대화 했다.

‘고창 해풍고추축제’는 매년 풍성한 행사뿐만 아니라 해풍고추와 고창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려 농가가 직접 재배한 고품질 고추와 신선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다. 이번 축제에서도 청정 고창의 농수산물을 직접 보고 구매하기 위해 찾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박우정 군수는 “친환경 먹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 청정 고창의 잘 보존된 자연생태환경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며 “해풍고추 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판매되어 농가소득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추석맞이 남원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활동 총력

남원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리산과 섬진강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서울시장 광장, 수도권 아파트 등 10개 주요지역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활동으로 추석 명절 특수를 잡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이번 추석 직거래장터에는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배, 포도, 사과, 딸론과 남원축협이 참여해 한우, 남원농특산물유통사업단 및 가공식품, 특산물, 허브제품을 1일부터 11일까지 농특산물 최대 소비자인 수도권 및 mbc방송국상암미디어센터, 서울시청, 구로·강서·서초구청과 영등포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등 추석 명절 구매수요가

많은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남원시 농·특산물 홍보 및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판매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추석 명절에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남원시 홈페이지 안내 홍보와 사이버장터(www.loveramwon.co.kr)를 통한 인터넷 판매 실시로 남원시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는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에 춘향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치즈선진국 체험캠프 보고회

19명 학생 대상 발전방향 토의

치즈선진국 체험캠프 보고회가 지난 25일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에서 이재천 교장을 비롯해 임실군 관계자,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체험캠프사업은 국내 유일의 치즈마이스터 고등학교 임실치즈과학고 치즈와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국의 치즈가공 기술 습득과 관련 산업 견학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군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7박 9일간 진행된 체험캠프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캠프에 참가한 고은비 학생은 “치즈

제조 기술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재천 교장은 “전문과 식견을 넓히고 미래 치즈 유가공 기술자로서 경험을 축적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 군 관계자는 “치즈캠프를 통해 임실 치즈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치즈선진국 체험캠프는 뉴질랜드의 젓소, 신앙 목장을 견학하고 사육과정부터 착유까지 과정을 체험했으며 특히, 치즈스툴에서 다양한 치즈를 직접 제조하고 맛을 평가하는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마을가꾸기협의회가 주관하는 '2016년 마을만들기 포럼'이 26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임실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모색

마을가꾸기협의회 주관 군청 농민교육장서 공론의 장 마련

임실군 마을가꾸기협의회(회장 신승철)가 주관하는 '2016년 마을만들기 포럼'이 26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심민 군수를 비롯한 22개 마을 위원장, 회원, 읍·면·담당 공무원, 외부 활동가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중간지원조직인 '농업농촌활력센터'의 역할과 과제 설정을 위한 민간, 행정, 전문가의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주제발표 및 토론에 나선 전북연구원과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 관계자는 최근 도내 마을사업을 수행한 229개 마을 전수조사결과를 근거로 전북도 마을만들기 현황, 군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 시군 중간지원조직의 과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다 지역 사례로 '경기도 양평군'과 '충남 홍성군' 관계자가 직접 토론에 참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내용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신승철 회장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부적인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중이 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2016년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시군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2017년까지 총 1억원을 지원받는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국새농민회 전북도회 - 고창군회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사랑의 쌀 · 표창장 전달 등

전국새농민회 전북도회(회장 이홍재)와 전국새농민회 고창군회(회장 김호성)가 회원간 화합과 유대강화를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를 고창군에서 개최했다.

지난 26일 고창살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는 송하진 도지사, 박우정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의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성희 전국새농민회장과 전북 새농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새농민회 전북도회는 고창군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으며 표창장 및 감사패 전달, 민속경기, 시·군별 노래자랑 등 화합을 도모하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새농민회는 이날 수입과일의 범람과 쌀 관세와 문제 등 농업의 위기 상황에서 회원간 화합 및 유대강화를 통한 새농민회 위상강화와 소양교육, 신농업기술 습득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다짐했다.

새농민회 전북도회 이홍재 회장은



대회를 통해 “새농민회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여 우수 농업기술 성장과 농업인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선도농업인으로서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인 후배와 귀농귀촌인들이 함께 희망찬 농업·농촌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새농민회의

선진농업기술과 미래 농업에 대한 비전에 체계적이고 세심한 정책적 실현이 더해진다면 우리의 뿌리인 농업을 지키고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 새로운 활기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한마음 전진대회가 회원 상호간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으로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어르신 교통 안전 홍보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관내 마을회관·노인정·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어르신 대상 안전 홍보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에 밝은 옷 입기, 오토바이 운행 시 안전모 착용하기,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나 농기계 운전하지 않기 등 어르신 대상 보이 스피킹 법칙이 무엇인지에 설명하며 경찰이 법원을 사칭하여 걸려오는 전화에 대처요령 등에 대해 경찰관들이 마을회관 등에 찾아가 홍보·교육하였다.

또한 차매어르신들의 실종신고가 때마다 증가함에 따라 “사건등록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등록을 권유하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종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박인규 순화파출소장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만큼 어르신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자체시책인 ‘계절·요일별 방법활동’을 테마별로 만들어 농작물 절도, 수확기 빈집털이 예방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전한 순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섬진강 일대 토종어류 방류

자연보호 임실군 협의회(회장 김은정)는 섬진강 상류 지역 관촌면, 신평면 일대에서 토종어류 방류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회원 및 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 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확보에 도움을 주는 붕어 및 다슬기 치어 총 300kg을 방류했다.

특히, 다슬기는 하천바닥의 폐사체 등 유기물을 제거해 수질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류행사 후 하천정화활동을 비롯해 환경보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 진행됐으며, 자연보호 협회는 매년 치어 방류 및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청정임실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김은정 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섬진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홍) 부안파출소에서는 개학을 맞이하여 어린이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 전개 및 어린이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어린이는 몸이 작아 잘 보이지 않고, 예측이 어려우며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고, 작은 충격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어린이 승·하차 표시,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통승보호자 탑승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어린이 대상으로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어보형 3원칙(사다보다-건다) 등을 설명하였다.

고명희 소장은 “통학버스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반차량의 서행 위반 및 앞지르기 금지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한 건의 어린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